

## [프로야구]케도수정한 넥센 '일단 버티자'

등록 2013.08.16 11:10:40 | 수정 2016.12.28 07:55:03



【서울=뉴스is】창단 첫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는 넥센 히어로즈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사진은 9일 목동 SK전에서 이택근의 솔로포에 함께 기뻐하는 넥센 선수단의 모습. (사진 = 뉴스is DB)

【부산=뉴스is】권혁진 기자 = 넥센 히어로즈의 사상 첫 가을야구행을 위한 선택은 '버티기'였다.

넥센은 지난 15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부산 원정 경기에서 6-1로 이겼다. 이 승리로 4위 넥센은 5위 롯데의 추격을 4경기차로 따돌렸다.

비교적 넉넉한 리드를 벌여놓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36경기나 남아있어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게다가 롯데 뿐 아니라 범상치 않은 기세로 따라 붙고 있는 6위 SK 와이번스(43승2무45패)의 행보도 신경써야 한다. 넥센으로서는 매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다.

넥센은 일단 버티는 쪽으로 남은 시즌의 가닥을 잡았다.

최근까지 71승을 목표로 내걸었던 넥센은 이를 하향조정했다. 71승을 거둬 내심 플레이오프 직행까지 내다봤지만 8월 들어 4승1무5패로 주춤하면서 포스트시즌 마지노선 수성을 새로운 과제로 설정했다.

염경엽 감독은 "그동안의 페넌트레이스를 돌아보면 8월에는 특별히 치고 나가는 팀이 없었다. 투수나 타자 모두 지쳐있기에 결국 지키는 팀이 올라갔다. 8월과 9월에는 매년 그래 왔다. 지금은 갑작스레 기술을 향상해 치고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승차 없이 1,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55승2무35패)와 LG 트윈스(57승37패)의 자리를 탈환하는 것이다. 머릿속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체력이 떨어진 현재의 오버 페이스는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같이 준플레이오프를 치르는 3위 자리를 노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넥센은 일단 지키는 야구를 기반으로 추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염 감독은 "위를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2위를 따라잡기에는 사실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지금은 부상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하다보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어느 특정팀을 경계하기보다는 우리 팀이 이기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jkwon@newsis.com](mailto:hjkw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